

오종쇄(전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1) 1차 구술

1. 구술자: 오종쇄
2. 면담자: 박보영
3. 촬영자: 권용협
4. 구술일자: 2011년 12월 12일
5. 구술장소: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기숙사 전하관
6. 구술분량: 06분 00초 / 일부 공개
7. 주요내용: 1988년 현대중공업 파업 당시 현장연설 상황

구술자 : 노조²⁾ 만들고 팔십칠(87)년 구(9)월 달에 권용목씨가 구속됩니다. 구속되고 이제 변호사가 필요해서 부산을 갔는데 그 부산에서 이제 울산에 송철호 변호사님을 소개하지요. 노무현 변호사님과 같이 권용목씨 같이 선임계를 넣어주고 재판하면서 주로 송철호 변호사님이 (변론)하면서 (석방돼서) 나오고. 그러고 이제 팔십팔(88)년도가 돼서 변호사님 이제 국회의원이 되신 거죠. 바로 팔십팔(88)년 사(4)월 달에. 결정적으로 더 많이 도움을 받게 되는 거는 팔십팔(88)년 현대엔진 이삼(2~3)월 농성이 있었고 그 농성에 이후에 오(5)공 청문회 석상에서 이제 현대엔진이 이삼(2~3)월 농성을, 그 당시에 이제 현대중공업 창업주인 정주영 회장이 나온 곳에서 (노무현 의원이) 노동 쪽 질문을 많이 해서 더 이렇게 알게 되고요. 그 농성 자체가 그 당시는 굉장히 이슈가 되고 그해 여소야대 국회가 됐잖아요. 그때 십이(12)월 달에 인제 (제가) 석방돼 나옵니다. 그것도 구속 집행정지로. 구속돼 있다가. 그러니까 그 일(1)심 형을 받고 이(2)심 재판 도중에 나온, 좀 파격적인 일이었어요. 형이 확정돼서 사면복권으로 나온 게 아니고 구속 집행정지로 나온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대엔진 이삼(2~3)월 농성 자체가 정치쟁점화 되고 시국사건으로 된 것이 그리고 인제 문제가 있는 걸로, 회사가 지나치게 노조를 탄압하고 뭐 문제가 된 걸, 어떻게 보면 전체 노동과 자본으로 보면 노동 쪽이 정당성을 부여받는 데 대한 노무현 변호사님의 그 당시 노무현 국회의원의 역할이 있었다, 이렇게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1) 현대중공업 17, 18대 노조위원장(2007년~2011년)

2) 당시 구술자가 근무하던 현대엔진 노조 설립을 말함.

석방돼 나와서 팔십팔(88)년 십이(12)월 말부터 이제 백이십팔(128)일 파업³⁾이 시작되는 겁니다. 파업이 시작되는데, 파업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나왔을 때는 벌써. 파업을 하고 있는데 노무현 변호사님 울산에 오신 거예요. 국회의원으로.

팔십팔(88)년 십이(12)월 이십육(26)일 오셨는데 석방돼가 오(5)일 뒤에. 그때 이제 야산데(야사인데) 권형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노무현 변호사, 국회의원한테 마이크를 잡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기억에 남는 명연설 중의 하나가 ‘여군 팬티만 만들어도 방위산업체냐.’ (웃음) 현대중공업의 투쟁은 이제 방산이, 방위산업체가 파업한다고 그렇게 이제 문제, 쟁점이 됐는데 우리 사회에 이제 노동관계법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시면서 그게 보수언론 쪽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빌미가 됐습니다). 그 날 날씨가 굉장히 추웠어요. 추워서 양복입고 오셨는데. 추워서 현대중공업의 그 방한복 파카가 있었거든요. 방한복 파카를 추우니까 입으시라고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 잡고 연설을 하신 거죠.

면담자 : 그 마이크 좀 잡아달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하셨나요?

구술자 : 거부 안 하시더라고.(웃음)

면담자 : 즉석연설인?

구술자 : 그렇죠. 즉석연설이었습니다. 그때는 대중이 모인 자리니까 현장 즉석반응은 뭐라 그럴까 ‘열렬 환영’ 뭐 이런 거죠. 왜냐하면 그때 현대중공업 파업에 어떤 언론에서의 쟁점 이런 건, 파업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계속 냈던 게 ‘방위산업체가 파업한다. 방산은 파업 못하게 되어있는데 한다’ 이런 거였고. 그런데 대한 스트레스가 있는데 현역 국회의원이 와가지고 뭐, 여군 팬티만 만들어도 방산이냐고 내질러버렸으니까 얼마나 사람들 환호했겠어요. 그랬는데 보수언론들이 그 다음날 바로 인제 막 ‘법을 지켜야 되는 국회의원이 불법 파업현장에 가서 현행법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 이런 걸로 공격을 받은 거죠.

유명한 사람 또 뭐라 그럴까 우리 사회의 힘 있는 사람, 유명하고 힘이 있는 사람 또는 재야인사들의 지지와 도움 이게 파업의, 문제 해결은 노사 간에 어쨌든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파업을 이끌어가고 파업을 유지시키는 대중 동력에서 보면 전체 대중들 같이 가야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게 정당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

3) 1988년 12월 12일부터 이듬해 4월 중순까지 128일 동안 벌어진 파업. 이 파업의 후속으로 구속자 석방, 해고자 복직과 관련하여 1990년 풀리앗 크레인 점거 농성이 이어진다.

들이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많은 분들이 와서 연설하고 도와주는 게 좋았죠. 노무현 변호사님, 국회의원이 오셔서 그 연설을 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들한테는 힘과 위로죠.

■ 구술자 주요이력

1960. 울산 출생

1983. 현대엔진 입사

1987. 현대엔진 노조 결성(교육홍보부장)

1999. 민주노총 금속연맹 부위원장

2007. 제17대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

2009. 제18대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

1987년 7월 노동자 대투쟁의 도화선이 되었던 울산 현대엔진 노조 결성의 주역 중 한명이다. 현대중공업 파업 과정에 수차례 구속됐고 노무현 변호사가 변론을 맡았다. 1999년 금속연맹 부위원장을 거쳐 2007년 현대중공업 17대 노조위원장에 선출됐으며 18대까지 연임했다. ‘연구하고 전망을 제시하는 노조문화’를 표방하며 2007년 노동조합 내에 노동문화정책연구소를 만들어 운영해왔다.